



캐나다 오픈 우승... LPGA 사상 첫 아마 2승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6·한국이름 고보경)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아마추어 랭킹 1위인 리디아 고는 26일(한국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의 로열 메이페어 골프장(파70·6403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둘렀다.

합계 15언더파 265타를 적어낸 리디아 고는 2위 카린 이세르(프랑스·10언더파 270타)를 5타차로 따돌리고 여유있게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15세의 나이로 우승, LPGA 투어 역대 최연소 챔피언이 된 리디아 고는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LPGA 투어에서 아마추어 선수가 2승을 거둔 것은 리디아 고가 처음이다. 리디아 고는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 19위에서 7위로 뛰어오른다.

리디아 고는 캐나다 여자오픈에서 2승, 유럽투어 뉴질랜드 여자오픈, 호주

투어 뉴시우스웨일스 오픈 우승을 포함해 프로대회에서 4승을 수확했다. 아마추어 신분인 리디아 고가 상금을 받지 못해 우승 상금 30만 달러(약 3억3000만원)는 2위 이세르에게 돌아갔다.

리디아 고는 추격하던 이세르가 4타 뒤진 10언더파 270타로 먼저 경기를 끝내자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18번홀(파4)에 올랐다. 두 번째 샷으로 볼을 그린 위에 올린 리디아 고는 3m 남짓한 내리막 라인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인했다.

리디아 고는 프로 전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프로가 된다면 샷이 돈으로 계산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인 만큼 부모님과 뉴질랜드 골프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선수 중에는 김인경(25·하남금융그룹)이 8언더파 272타를 쳐 공동 5위에 올랐다. 시즌 7승을 노렸던 박인비(25·KB금융그룹)는 마지막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13위(4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고보경



추신수

ML통산

100도루 돌파

홈런 1개 추가면 '100-100클럽' 가입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3경기만에 안타를 치고 개인 통산 100도루도 돌파했다.

추신수는 26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그레이트 아메리칸볼파크에서 벌어진 밀워키 브루어스와의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를 때리고 도루 2개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통산 도루 99개를 쌓은 추신수는 이번에 100개를 넘어섰다.

23일 애리조나와의 경기 이래 사흘만에 안타를 친 추신수는 시즌 타율 0.278을 유지했다.

1회 첫 타석에서 깨끗한 우전 안타로 출루한 추신수는 후속 조이 보토의 타석때 2루를 홈쳐 100번째 도루 이정표를 세웠다.

추신수는 멈추지 않고 보토의 볼때 3루 도루도 성공해 시즌 16번째이자 통산 101번째 도루로 기록을 늘렸다.

그는 브랜드 필립스의 중견수 직선타 때

송구가 포수 뒤로 흐른 볼을 타 홈을 파고들었으나 쉽게 아웃됐다.

3회와 8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섰고 6회에는 볼넷으로 걸어나갔으나 득점에 이르지 못했다. 신시내티는 1-3으로 패해 74승 57패로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3위에 머물렀다.

또한 추신수는 홈런을 1개만 추가하면 통산 100(홈런)-100(도루) 클럽에도 가입하게 된다.

2006년 시애틀에서 클리블랜드로 이적해 첫 홈런과 도루를 기록한 지 7년여 만에 정복하는 고지다.

2008년 14홈런을 기록한 추신수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3할 타율과 20홈런-20도루를 넘겼다. 부진한 2011년(8홈런-12도루)을 지나 지난해 16홈런과 21도루를 올린 추신수는 올 시즌 16홈런과 16도루를 기록해 통산 세 번째 20-20을 향해 순환중이다.

다. /연합뉴스

김보경

맨시티전 승리 주역... MVP급 활약 평점 8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카디프시티가 강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에 역전승을 거뒀다. 구레출신 김보경은 팀의 동점골의 발판을 마련하는 돌파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카디프시티는 26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카디프시티 경기장에서 열린 2013-2014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골을 몰아친 프레이저 캠벨의 활약에 힘입어 3-2로 역전승했다.

개막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에 골 없이 0-2로 패한 카디프시티는 1962년 이후 1부 리그에서 첫 승과 첫 골을 올리는 감각을 누렸다. 1961-1962시즌 이후 출몰 2~4부리그를 전전하던 카디프시티는 올 시즌에 승격했다.

이날 경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한 김보경은 후반 45분 교체될 때까지 팀 공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중흥무진 뛰 어다녔다.

팀이 0-1로 뒤진 후반 15분에는 맨시티 수비수들을 제치고 땅볼 크로스를 날려 아론 군나르손이 동점골을 넣는 데 결정

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역전골도 김보경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김보경은 후반 34분 리그 최강의 수비형 미드필더 아야 투레를 제치고서 오른쪽 측면으로 패스했고 이는 캠벨의 역전골이 터진 코너킥으로 이어졌다. 이날 뛰어난 활약을 보인 김보경은 현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국제 스포츠 전문 방송 유로 스포츠는 경기가 끝난 뒤 매진 평점에서 김보경에게 앙투를 통틀어 가장 높은 8점을 줬다. 이는 역전골과 썩어골을 책임져 '최우수 선수'(Man of the Match)로 뽑힌 프레이저 캠벨과 같은 점수다.

스카이스포츠는 김보경에게 팀내 5번째로 높은 7점을 매겼다. 유로 스포츠보다는 다소 짝 점수지만 김보경을 두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 경험강조 대졸 8명 선택 아기 호랑이 10명 탄생

KIA, 멀티플레이어 강한울 '찜'



'호랑이 군단'이 경험을 선택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열린 2014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에서 원광대 내야수 강한울을 1라운드 선수로 지명했다. 2차에서는 연세대 투수 박상욱을 선택하는 등 10라운드에 모두 지명권을 행사하면서 10명의 '아기 호랑이'가 탄생했다.

경험을 강조하면서 8명을 대졸출신으로 선발했다. 특히 마운드는 모두 대졸 출신으로 꾸렸다. KIA의 약점으로 꼽히는 내야에서는 스피드를 강화했다.

1라운드에서 이름이 불린 강한울은 181cm, 65kg의 체격을 지녔으며 대학 최고의

주력을 자랑한다. 대학 시절 주로 2루수로 활약을 했으며 내야 전 포지션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다. 대학 통산 타율이 3할을 넘는 교타자이기도 하다.

강한울은 "상대를 괴롭히는 주루와 컨택 능력에 자신이 있다. 이용규 선배의 컨택 능력과 센스를 배우고 싶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열심히 해서 꼭 필요한 선수, 없으면 안 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상욱은 185cm로 투구 밸런스와 경기 운영 능력이 좋으며 안정된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 올 시즌 146km까지 기록했으며 변화구는 커브와 슬라이더를 주로 던진다. 과감한 피칭을 하는 스타일로 스프링캠프를 거친 뒤 내년 시즌 1군 불펜 요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3라운드에 지명된 사이드arm 김지훈도 변화구 구사 능력이 좋고, 제구가 뛰어난 즉시 전력감이다.

4라운드에서 지명된 김영광(홍익대)은 부

드러운 폼을 가진 좌완으로 투구 밸런스가 좋아 발전 가능성이 높다.

KIA는 이외에 5라운드 박찬호(장충고·내야수), 6라운드 박준태(인하대·외야수), 7라운드 이진경(울산공고·포수), 8라운드 박진두(진흥고·내야수), 9라운드 최원준(성균관대·내야수), 10라운드 류현철(경남대·외야수)을 지명했다.

청소년 대표인 박찬호는 빠른 발과 안정적 내야 수비를 자랑하며 수비 움직임이 매우 좋다. 박준태는 공·수·주를 갖춘 선수로 어깨가 좋으며 타격 센스가 좋다. 또 강한 근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포수 이진경은 어깨가 강하며 집중 육성을 통해 미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이다.

박진두는 고교 좌타자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파워가 돋보이는 선수다. 최원준은 컨택 능력이 좋은 중·장거리형 타자로 어깨도 강하다. 류현철은 빠른 발을 통한 안정적인 외야 수비가 좋다.

한편 이번 지명 회의에서는 4명의 지역 선수들이 1라운드에서 호명이 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진흥고 에이스 하영민이 넥센, 동성고 에이스 박규민이 SK, 건국대 졸업 앞둔 동성고 출신 문동욱이 롯데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동성중·화성고를 거친 동국대 투수 고영표도 KT 1라운드 지명을 받아 KIA 고영우와 형제 야구인이 됐다.

정형식(삼성)의 친형인 진흥고 출신 투수 정영일은 SK, LG 문신재의 친동생인 내야수 문신재(동성고·원광대)는 두산의 선택을 받아 형제간의 승부를 앞두고 됐다.

부자 야구인도 탄생했다. 이순철 KIA 수석코치의 아들 이성근(연세대)과 '꽃재지' 문희수 동강대 감독의 아들인 광주일고 투수 문지훈이 각각 두산 선수가 됐다.

이외에 효천고 광주일고 정지훈(내야수·두산), 박계범(내야수·원광대 투수 배진선(동성고·이상 삼성) 등 지역 선수들이 프로에 데뷔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4강 물전너 간 호랑이

팬심 붙잡을수 있을까

신생 NC와 7·8위 경쟁... 롯데·넥센·NC 홈 6연전

프로야구 전망대

꾸준함이 필요한 두 얼굴의 KIA 타이거즈.

KIA 타이거즈의 '극과 극'의 플레이는 지난 주에도 계속됐다. 넥센과의 주말 2연전은 KIA의 현실과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24일 선발로 나선 서재응은 6.1이닝 동안 자체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패전 투수가 됐다. 2-2로 앞서있던 5회 2사 1·3루, 2루수 안치홍의 실책이 나오면서 3루 주자 서동욱이 홈을 밟았다. 이택근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2-2 동점. 서재응이 박병호를 상대로 땅볼을 유도했지만 이번에는 유격수 홍재호가 공을 빠트리면서 역전 주자가 들어왔다.

나지완이 몸을 던지는 호수비로 겨우 이닝을 끝냈지만 뒤집힌 승부는 되돌릴 수 없었다. KIA는 6회부터 9회까지 볼넷과 안타 하나를 더하는 데 그치며 경기는 2-3패로 끝났다.

임준섭이 선발로 등판한 25일, 전날과는 전혀 다른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었다. 1회부터 박기남이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2루타로 출루한 뒤 나지완의 적시타때 홈을 밟았다. 넥센 중견수 유한준의 그림 같은 수비에 이범호의 홈런성 타구가 플라이로 둔갑하고 말았지만 전날과는 다른 출발이었다.

이어진 1회말 임준섭의 제구 난조로 1-2 역전. 하지만 KIA는 3회 신종필과 나지완의 연속 안타로 승부를 뒤집었다. 6회에는 상대의 호수비에 올랐던 이범호가 중앙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을 날리며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수비도 달랐다. 24일 파울 플레이 타구를 놓쳤던 김주형이 이번에는 멋지게 공을 낚아챘다. 우익수 이종찬도 이를 연속 좋은 수비로 박수를 받았고, 패배의 빌미를 제공했던 안치홍은 교체해 들어가 8회 그림 같은 수비로 아웃카운트 두 개를 책임졌다. 경기는 9-6 승.

후반기 KIA는 '스테이 타이거즈'다. 일요일 승률은 100%. 하지만 주중 연패의 패턴이 반복되면서 여전히 7위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4강이 아니라 8위를 신경 써야하는

프로야구 중견수위 (8월 26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삼성	100	59	39	2	0.602	0.0
2 LG	101	60	41	0	0.594	0.5
3 두산	103	55	46	2	0.545	5.5
4 넥센	101	53	46	2	0.535	6.5
5 롯데	98	49	46	3	0.516	8.5
6 SK	97	47	48	2	0.495	10.5
7 KIA	96	43	51	2	0.457	14.0
8 NC	102	42	56	4	0.429	17.0
9 한화	96	30	65	1	0.316	27.5

처지다. 4위 넥센과 7.5게임차 6위 SK와도 3.5게임차다. 반면 8위 신생팀 NC와는 3게임차다.

일요일에만 빛나는 KIA가 꾸준함을 보여줘야 하는 시간. 이번 주에는 안방에서 6 경기를 갖는다. 상대는 롯데·넥센·NC이다. KIA는 홈에서 치른 6경기에서 19승을 챙기는데 그쳤다. 멀어져 가는 팬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화려한 플레이가 필요하다.

후반기 중요한 순간에 명성에 맞는 활약을 하지 못했다. 김진우와 이범호에게는 자존심 회복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다.

김진우는 후반기 5경기에서 2승3패를 기록하고 있다. 넥센과의 경기에서 8이닝 무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되기는 했지만 패전투수가 되는 과정이 너무 좋지 못했다. 세 경기에서 3.2이닝·5이닝·2.2이닝 동안 7실점을 하면서 급격히 흔들렸다. 선발투수의 침착하지 못한 승부에 쉽게 경기 흐름이 넘어갔다. 지난 두산전 베이스캐버를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선발 로테이션을 한번 한 김진우는 이번 주 다시 마운드에 선다.

이범호는 18개의 홈런으로 팀내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예전의 승부사 기질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득점권 타율이 0.195. 병살타도 팀에서 가장 많은 12개를 냈다. 운도 따르지 않았다. 상대 호수비에 번번이 아쉬움을 삼켰던 이범호는 25일 시원한 한방으로 모처럼 승리의 주역이 됐다.

해결사 분을 깨운 이범호의 개인 기록 도전도 계속된다. 3개의 홈런을 더하면 통산 19번째로 200홈런의 주인공이 되고, 2000루타(37번째)에도 19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